

이슬람 원리주의와의 공존?

조지 카치아피카스

내가 현재 미국에 있지 않다는 것은 내게 큰 행운이다. 탄저균이나 테러가 무서워서가 아니다. 미국 현지에서 토네이도보다도 강력하게 휘몰아치는 애국주의에 나의 생각과 정신이 젖어들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의 그같은 국가주의적 소용돌이(1979년 이란에서의 미국인 인질 위기사건)때에도 나는 다행히 해외에 거주하고 있었다. 내가 나의 주거지를 언급하는 이유는 미국인 절대 다수로부터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었던 나의 세계에 대한 시각이 이질적이거나 심지어 고립되고 불경스런 것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에서는 인종들의 관점이 미국인들의 그것과 닮은 점이 거의 없다. 한국의 20세기는 대단히 암흑했다. 형언할 수 없을 만큼 가혹했던 일본의 식민점령을 시작으로, 종전 후에는 반미항쟁에 대한 유혈 탄압이 있었으며 한국전쟁 기간 동안에는 거의 한반도 전체의 사회기반이 파괴되고 수백만명이 목숨을 잃었다. 1953년 이래 얼어붙은 전시 상황은 남북한 양쪽에서 끊임없이 독재를 부추겼다. 수십년에 걸친 엄청난 희생과 위대한 투쟁을 통해 남한 국민은 자유의 단초와 최소한의 민주주의를 쟁취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미국 기업들은 막대한 이윤을 챙겼다. 그래서 9월 11일 미국의 심장부가 공격당했을 때 많은 한국인들은 길으로는 미국에 대해 동경하면서도 은밀한 축하의 감정을 가졌으며, 사적으로는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 지역인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안겨주고 있는 미국 자신이 그동안 줄곧 다른 국가들에게 수출해왔던 고통을 똑같이 경험하게 된 데 대해 만족감을 표시하기도 했다.

오사만 빈 라덴은 미국에서는 중오와 비난의 대상이지만 많은 한국인들에게는 21세기의 체 게바라이다. 개인적 희생의 감수, 억압받는 이들에 대한 헌신, 그리고 이상을 위해 국경을 넘어 싸울 수 있는 능력 때문이다.

광주에서 BBC 월드뉴스를 지켜보면서(나의 케이블TV 채널에는 CNN이 나오지 않는다) 나는 잘못된 선출된 미국 대통령의 궤변으로 가득한 허식에 놀랐다. 부시 현 대통령은, 지금은 빈 라덴 집단의 사업 제휴자이자 과거 콘트라 마약 딜러들과 연루된 바 있는, 조지 부시 前 미국 대통령의 아들이다. 부시는 또 나치의 고위 협력자였던 산업자본가의 손자이기도 하다. 그런 그가 자신을 인권과 자유의 챔피언으로 묘사하는 한편으로는 아프가니스탄을 이미 석기시대로 황폐화시켰을 만큼의 폭탄을 퍼붓고 있다.

웹사이트를 검색하면서 나는 최근 우즈베키스탄 타쉬켄트 남부 지역에서 항공운항과, 에버그린 및 CIA가 소유하고 있거나 적어도 CIA와 관계있는 항공사가 늘어난 것을 알고 낙담했다. 한편, 리차드 세커드(베트남전 당시 인도차이나 지역 헤로인 마피아의 지원한 고위급 실무자이자 80년대 콘트라 마약 딜러의 주요인물)가 최근 그곳을 두 차례나 방문한 것으로 보도됐다. 토니 블레어 영국 총리가 탈레반의 마약생산이 독버섯처럼 번지고 있다는 거짓 선전의 핵심인물로 종사하고 있는 동안 UN은 지난해 탈레반의 마약생산이 90%까지 떨어졌다고 발표했다. 반면 우즈베키스탄 지역에서는 양귀비꽃이 증식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는 의심할 바 없이 세커드와 미국 정부 내의 또다른 비밀정부의 안락한 거점으로서 중요한 것이다. 아프가니스탄 북부동맹의 지도자들은 마약재배를 통한 부(富)가 곧

실현되리라는 전망에 짜릿해할 것이다. 아마도 9월 11일(뉴욕 테러가 일어난 날)에 태어난 아이들이 50살이 될 무렵이면 그러한 세부적인 전망이 대중적으로 알려질 지도 모른다. 이와 함께, 미국 정부가 9월 11일 테러공격을 사전에 알고 있었으면서도(진주만 공격 정보를 미 정부가 사전에 입수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이제는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미 준비해 놓은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대한 적합한 구실을 확보하기 위해 그런 사실을 감췄다는 증거가 산더미처럼 밝혀질 수도 있다.

어제 전남대에서 반전시위를 하는 학생들을 보면서 나는 미국내 반전평화운동의 미미한 효력과, 국민들의 의식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는 무능함이 비탄스러웠다. 미국 정부는 전 세계로부터 전투력과 의약품 지원받기 위해 미국인들을 장기전으로 유도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만일 미국의 진보주의자들이 이슬람 근본주의와 아랍 민족주의에 대한 장기전이라는 국제사회의 거대한 힘의 방향을 바꾸기 위해 무력의 성과라는 흐름을 제지하기를 원한다면 (현 사태에 대한) 관점과 가치관부터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해야 할 필요가 있다.

9·11테러 이후 고통스런 슬픔의 표현과 마음으로부터의 비탄으로 가득한 미국인들의 움직임은 어떻게 한 나라 전체가 다른 무엇보다도 미국적 삶에 가치를 부여하는 선전체계에 의해 일사불란하게 나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미국의 대중들은 자국의 통채로 인한 50만명에 이르는 이라크 어린이들의 죽음을 죄책감이라곤 거의 없는 수동적 태도로 받아들인다. 미국인들은, 다른 나머지 나라의 인권의 대가에 상관없이, 미국식 삶의 방식의 우월성에 대한 충성심을 유지하고 있다. 지구상의 억압박인들의 반제국주의 운동이 만일 우리의 가치, 페미니즘과 동성애자 해방에 관한 견해, 민주적 선거와 개인의 자유 등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들에게 연대나 공감, 합법성 따위는 없을 것이다.

이슬람 근본주의의 경우, 거의 모든 서방언론의 비평가들은 그것(이슬람 근본주의)을 미국의 문화제국주의와 군사적 침략에 대한 잘못된 방향의 반발로 보고 있다. 그런 관점은 자신들만의 권리로 이슬람 근본주의 당국을 부인한다. 그런 관점을 만들어내는 것은 바로 우리요, 그들은 우리가 빚어내는 찰흙일 뿐이다. 거의 아무도 이슬람의 풍부한 역사와 철학에 눈길을 주는 시늉조차 해 본 적이 없다. 만일 그렇게 했다면(이슬람의 역사와 철학에 관심을 가졌다면) 토라나 성경과 달리 코란은 이슬람 세계에서 그 자체로 신의 말씀으로 간주되며 일상 생활에 관한 신의 명령이 명료하다는 것을 즉시 알아차릴 수 있었을 것이다.

12세기로 거슬러 올라가면 아베로스(Averroes)가 저술하고 있었고 서양은 이슬람 근본주의가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뒷전에 머물러 있었다. 그렇다면 이슬람 근본주의는 어떻게 해서 서양의 현대화에 대한 대응을 줄일 수 있을까? 우리의 답은 어디에도 수백만 모슬렘 근본주의자들의 신앙적 경건함과 존엄성, 유대인 종교행위에 대한 이슬람의 역사적 관용에 대한 인정은 찾아볼 수 없다. 유대인에 대한 이슬람의 관용은 수세기에 걸친 서구의 (유대인)학살 및 나치의 대학살에서 정점을 이뤘던 편협함과 대비된다. 이슬람 사람들은 그 도서관과 학식을 존중하고 찬양하던 코르도바 유대인들의 운명의 증인이지만 스페인의 정복 이후 한 묶음으로 고통받고 추방당했다. 이슬람 역사에 대한 공감까지는 아닐지라도, 현재 이슬람 세계에서의 유대인에 대한 증오는 서구의 우월한 가치에 대한 반동이 아니라 이슬람의 서양화로 이해되어야 한다.

현재 서구에서의 반 섹스 정서는 유대인 금융자본가나 공산주의자에 대해서가 아니라 아랍 석유국별과 테러리스트들에 대한 증오와 살해의 형태를 띠고 있다. 이슬람 근본주의에 대한 다수 좌파들의

관점의 유럽중심적 내용을 올바르게 인식하기 위해 잠깐 폴란드연대운동의 사례를 검토해보자. 연대의 가부장적 성격과 종교적 보수주의에도 불구하고 좌파는 이에 알랑거리며 찬사를 했다. 그것들이 혁명의 주체에 대한 우리 기대의 노동자계급적 정의(定義)에 부합했기 때문이다. 다니엘 싱어는 이 문제에 관한 자신의 책에서 연대의 이 같은 퇴행적 특질을 신중하게 기록했다. 그는 이어 혁명의 주체들을 우리 자신의 관점이 아니라 그들 자신의 구체적인 존재의 문맥에서 판단하라고 경고했다.

인터넷 덕분에 나는 9·11 테러 이후 많은 미국내 좌파들과 생각을 함께 할 수 있었다. 거의 모든 경우 불관용(不寬容)과 흑-백(백인과 유색인종) 범주가 적들에 관한 토론에 활기를 불어넣었다. 카타 폴리트는 11월 5일 <국가>를 쓰면서, 베트남전과 달리 이번에는 미국 본토가 직접 공격을 받았으며 적들은 혼란스러운 광신도들이라고 보았다. 10월 14일 <국가>의 편집자이자 <LA 위클리>의 컬럼니스트인 마크 쿠퍼는 그들(이슬람 집단)이 모든 인간성과 진보적 도덕률에 정면으로 반하는 세계관을 가진 격세유전의 종교적 과시스트들이라고 칭했다. 또다른 저명한 평론가(그녀의 발언은 사적관계로만 볼 수 있는 것이었으므로 성명을 밝히지 않음)는, 우리가 평화와 협력을 향해 진보하는 한 이슬람 근본주의의 불관용(不寬容)이라는 교리는 현대사회에서 설자리가 없다고 말했다. 불관용에 대한 불관용'인가?

이러한 예는, 물론, 우리 삶에는 단지 하나만의 올바른 길이 있다는 견해에서 나온다. 만일 좌파가, 저명한 페미니스트 이론가인 세일러 벤하비브의 책에서 가장 명료하게 표현된 바 있는 개념처럼, 정의에 대한 단일중심적 견해를 지속한다면 평화는 결코 실현되지 않을 것이다. 대안적 관점은 백인 거주 지역에 대한 자치권을 인정했던 넬슨 만델라와 백인의 권력은 백인에게만 속해야 한다고 주장한 프레드 햄프턴(블랙팬더당의 지도자로, 1969년 FBI와 시카고 경찰에게 살해됨)에게서 찾아볼 수 있다. 의심할 바 없이, 많은 사람들은 이슬람 근본주의를 긍정적인 자산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바로 이 점이 평화적 공존이 결정적으로 중요한 이유이다. 대안(을 찾는 것)이야말로 끝이 없는 전쟁이다.

프랑스 제국주의가 무너지기 전, 두 번의 결정적인 식민지 전쟁 패배가 프랑스의 전 지구적 영광에의 꿈을 끝장냈다. 그 하나가 베트남전이고 다른 하나는 알제리 전쟁이다(이 두 전쟁으로 수백만 토착민들이 목숨을 잃었다). 미국의 제국주의적 야욕은 인도차이나 반도에서 이미 200만명 이상의 목숨을 앗아갔다.

베트남에서와 마찬가지로, 미국은 이슬람근본주의 및 아랍 민족주의와의 전쟁(91년 걸프전과 현재 진행중인 오사마 라덴 살해와 텔레만 정권 전복 시도) 중에 벌어지는 거의 모든 전투를 이길 수는 있다. 그러나, 내 생각에, 미국이 결코 이 전쟁을 승리할 수 없으리라는 것은 거의 분명하다. 모슬렘들은 수 세기 동안 십자군 점령지역, 특히 예루살렘을 회복하기 위해 싸웠다.(예루살렘은 이슬람의 3대 성지이지만 지금 그 곳에 갈 수 있는 모슬렘은 거의 없다). 현실적으로, 모슬렘들이 자신들의 성지가 서방의 점령 하에 있는데도 가만히 있는 것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이슬람 근본주의 및 아랍 민족주의에 대한 밑바닥이 없는 전쟁의 수렁에서, 미 제국 군사력의 무적 신화는, 지구적 정의의 문제가 새로운 문맥에서 풀려야 한다는 이슈만을 남긴 채 산산히 깨어질 것이다. 위와 같은 관측이 정확하다고 가정할 때, 두가지 근본적인 문제가 제기된다. 즉, 폭스 아메리카나가 몰락하는 데 따른 새로운 세계 질서의 성격은 어떤 것인가, 그리고 이스라엘은 어떻게 될 것인가?

현재의 역학관계(개별국가로의 독점적인 군사력 집중) 안에서 낙관론자들은, 미국의 군사적 헤게모니에 대항해서(또는 미국의 군사적 헤게모니에도 불구하고), 정의를 보장하고 약소국을 보호해 줄 대안으로 세계 군대에 의해 통제되는 유엔을 상정한다.

단일한 세계 군대는 분명히 군사화 된 개별국가로부터의 거대한 진일보로서, 무려 수조 달러에 달하는 군비지출을 절감하고 인간성을 회복시킬 것이다. 하지만 유엔이 통제하는 세계군대라는 착상은 많은 딜레마를 제기한다. 정확히 누가 그것(세계군대)을 통제할 것인가? 라는 문제가 특히 그렇다.

만일 우리 자신이 간략하나마 유평화(유토평화)에 대한 전망을 가지고 있다면(오늘날에는 9·11 테러 이후 어느때보다 어렵긴 하지만), 핵무기 및 생화학무기 뿐 아니라 전투기, 폭격기, 지뢰, 야포 등과 같은 이른바 제레식 무기까지 포함해서 대량살상무기의 완전철폐 라는 바람직한 희망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만일 이것이 전략적이어야 한다면 평화운동 -아직은 시작단계일 뿐인-은 군대의 개혁이 아니라 폐지로 방향을 돌려야 한다. 평화적인 운송수단조차도 대량살상의 무기로 둔갑하는 세상에서 거의 모든 사람들은 그러한 가정을 어리석은 것으로 여길 것이다. 그러나 주요 무기체계가 (개별국가) 정부의 손에 독점돼 있는 조건에서 힘없는 자들이 그 밖의 어떤 다른 수단으로 싸울 수 있겠는가? 비군사적 수단에 의한 갈등 해결의 보편화를 통해서만, 인간성의 미래가 암담한 우리의 현실을 넘어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전 세계의 군대를 철거하는 것은 세계경제체제를 최악의 침체상황으로 몰아갈 수도 있다. 그만큼 더더욱 이 문제는 완전히 다른(혹은 대립되는) 세계체제의 요구의 한 부분으로서 논의해야 하는 이유이다.

홀로코스트 이후 유대인의 안전 문제는 세계 정의의 중요 관심사가 되어왔다. 미 제국주의가 쇠퇴하면 이스라엘의 안보는 위협받을 것이 분명하다. 어쩌면 이스라엘은, 심지어는 핵무기 병기창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더 이상 현실적인 옵션으로 존재하기를 포기해야 할 정도가 될지도 모른다. 역사의 역설적인 변증법은 정복자를 피정복자로 바꿔놓으며, 또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죽음과 무방비의 아랍 및 아프가니스탄에 퍼부어진 미사일 하나 하나가 성지에 있는 이스라엘의 안전을 감소시킨다는 것이다. 시오니스트 프로젝트가 쇠퇴해지고 궁극적으로 패배할 경우 이스라엘의 수백만명의 유대인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만일 우리가 역사에서 뭔가를 배운다면, 유대인들은 2차 대전 이전 유럽의 역사에서 알려진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이슬람적인 틀 안에서 더 많은 권리와 특혜를 누릴 것이다. 과거에 대한 이런 역사의 정확함이나 미래를 위한 가치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유대인을 보호하기 위한 다른 예비수단이 취해져야 한다는 데 동의할 것이다.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선택에 따라 다른 국가, 특히 미국으로 자유롭게 이주할 수 있도록 하는 것보다 더 나은 제안이 무엇인가?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소련의 붕괴 당시 시오니스트와 미국 관리들이 러시아계 유대인들을, 얼마나 많은 가족 구성원이 다른 곳에 있든지 상관없이 난민들의 자유선택권을 무시한 채 이스라엘로 추방하도록 조약을 조율했었다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논의는 -시오니스트 국가의 앞으로의 생존능력의 결여에 대한 진지하고 현실적인 평가, 그리고 오늘날 우리 자신이 속해 있는 역사적 발전의 긴 흐름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요구된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다소 흥분에 도취된 생각이거나 고약하게 고안된 선전으로 보일 것이다. 그러나 제정인 사람치고, 현재 미국이 어떠한 군사행동을 수행하더라도 9·11 테러와 같은 절망적이고 필사적인

행동을 촉발할 수도 있는 정책을 수정하기 위한 조치들이 취해져야 한다는 데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나는 수년 동안 팔레스타인 독립국가 건설을 지원하는 일을 해왔다. 지금은 마침내 미국과 영국이 팔레스타인 독립국가를 건설해 위임통치국으로 지정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기보다는 평화운동이 이것을 중요한 일보 전진으로 포용해야만 한다.

전형적이고 충실한 반대운동들과 달리 전략적인 사회운동은 위기에 즉각적으로 대처하면서 위기의 순간에 혁명적 사상을 주입할 수 있는 장기적인 방향수립을 모색하고 있다. 이제, 나의 주장을 더 이상 연장하지 않고 개혁과 혁명의 관계에 대한 토론을 더 이상 전개하지 않은 채 이 글을 요약하려 한다. ; 이슬람 근본주의 및 아랍 민족주의와 평화적 공존을 생각할 때가 왔다. 우리는 평화적 공존을 받아들이고, 미국의 정책을 변화시키기 위해 그것을 대중의 마인드에 전파할 필요가 있다. 좌파가 도와야만 할 새로운 평화운동에서는 다음과 같은 전략적 목표들이 끊임없이 제기되어야 한다.

1. 대량살상무기와 각국 군대의 전반적 폐기
2.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스스로 선택한 국가로 자유롭게 이주할 수 있는 권리
3. 모든 종교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자유롭게 예배하는 것을 허용하기 위한, 예루살렘에 대한 즉각적인 국제적 통제.
4. 팔레스타인 독립국가 건설 지원.

2001년 11월 3일 대한민국 광주에서, 조지 카치아피카스